

## HEADLINE NEWS

### “창작의 수도, 파리”, 2003년은 시가 정한 ‘창작의 해’ (파리)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가 1997년 “영국의 21세기를 디자인으로 부흥시키자”고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몇년 후 이 전략은 주효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1998년 제2차 아셈 회의 당시 “Powerhouse: UK” 라는 전시회를 선보였던 영국은 산업 혁명 이래로 따라붙었던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미지를 ‘세계 디자인의 중심지’라는 이미지로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탈리아와 영국에 디자인 종주국의 자리를 빼앗긴 프랑스는 최근 부라부라 추격전에 나섰다.

파리시는 2003년을 ‘창작의 해’로 정하고, “창작의 수도, 파리(Paris, la capitale de la création)”라는 주제로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장식미술가,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사진가, 일러스트레이터, 출판 기획자 등 시의 모든 창작자원을 한 자리에 모으고 해외의 바이어들을 초청해 전시회, 박람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와 해외의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 포르트 드 베르사유와 파리 노르 빌팡트에 소재한 박람회장에서 10개의 살롱을 열었다. 시는 이를 위해 6,600명의 전시회 관계자를 투입, 20만명(외국인 75,000명 포함) 가량으로 추산되는 방문객을 맞이하는 데 전력을 투구했다. 시는 이 살롱이 가져다줄 경제적 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파리가 여전히 세계 창작산업의 중심지임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ww.capitale-mode.com)

(www.paris.fr/FR/actualites/capitalecreation/default.htm)

## HIGHLIGHTS

### 도시환경

- 1 교통신호기 설치 및 도로공사시 환경평가 실시 계획 (오타와)

### 도시교통

- 2 웹사이트 및 이메일을 통해 대중교통 통행경로 정보 제공 (아이오와시 / 델러스시)
- 3 웹사이트를 통해 교통예산 절감 아이디어 공모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
- 4 승객안전 위해 철도역 바닥에 안전홍보 스티커 부착 (워싱턴 D.C.)
- 5 기상조건에 따라 도로관리방안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 개발·운용 (미국 쏘도시)

### 사회복지

- 6 보육 및 교육을 함께 하는 일체형 유아시설 개설 (동경)
- 7 첫째 및 셋째 자녀 이후의 세 미만 영아 보육료 전액 지원 (일본: 아키타현)
- 8 노인들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정보 제공하는 웹사이트 개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

### 행재정

- 9 지하철 歷史의 공유를 위해 시민들에게 지하철 차량 부품 판매 (뉴욕)
- 10 「조세사면」 제도 도입·시행 (뉴욕)
- 11 예술 및 문화도시 조성 위해 문화 예술단체에 문화 기금 지원 (보스턴)

### ① 교통신호기 설치 및 도로공사시 환경평가 실시 계획 (오타와)

캐나다 오타와(Ottawa)시는 교통신호기 설치 및 이와 연관된 도로공사를 실시할 경우 환경평가조례의 관련규정을 원용해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평가의 주된 목적은 교통신호주기 신규 설정에 따른 자동차 통행속도 및 대기환경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며, 이외에 시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특히, 보행자, 자전거 및 이륜차 이용자의 교차로 이용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시는 교차로 신호기 설치에 앞서 기존 투자사업의 적정성, 설계대안, 추가 검토사항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www.city.ottawa.on.ca/cgi-bin/simple.cgi](http://www.city.ottawa.on.ca/cgi-bin/simple.cgi))

### ② 웹사이트 및 이메일을 통해 대중교통 통행경로 정보 제공 (아이오와시 / 댈러스시)

미국 아이오와주 아이오와시(Iowa City)는 대중교통 노선정보를 제공하는 'Trip Maker' 웹사이트를 최근 개설했다. 이 시스템은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목적지, 출발지, 출발시각, 왕복여행 여부 등을 알려주면 담당자가 최단시간 경로를 파악해 이용자에게 2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알려준다. 시당국은 최근까지 이러한 대중교통 이용정보를 전화로 제공해왔으나, 시민 편의를 위해 이같은 이메일 서비스를 개시했다.

한편,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Dallas)시의 대중교통운영기관인 'Dallas Area Rapid Transit(DART)'도 'Trip Planner'라는 웹사이트를 최근 개설해 이용자에게 출발지와 목적지간의 최적 대중교통 통행경로 및 예상통행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버스와 철도간의 최적 환승지점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DART는 1,800개 주요 지점과 11,000곳의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을 포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3년간 39만달러를 투자했다.

([www.press-citizen.com/news/012603transit.htm](http://www.press-citizen.com/news/012603transit.htm))

### ③ 웹사이트를 통해 교통예산 절감 아이디어 공모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

미국 미네소타주 교통부는 교통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 및 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통예산 절감 아이디어 제안을 받는 웹사이트를 최근 개설했다. 주교통부는 앞으로 이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되는 모든 아이디어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에 적용될 예정이다. 주는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웹사이트를 개설했으나, 일반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올라온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가로등 축소, 통행료 징수, 일부 고속도로 휴게시설 폐쇄 등이다. 현재, 미네소타주에는 주지사 및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웹사이트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중이다.

([www.dot.state.mn.us/newsrels/03/01/14costsavingsideas.html](http://www.dot.state.mn.us/newsrels/03/01/14costsavingsideas.html))

### ④ 승객안전 위해 철도역 바닥에 안전홍보 스티커 부착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워싱턴시의 대중교통운영기관인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10개 주요 환승역의 바닥에 안전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Safety Dots'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이번 계획에 따르면,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련 문구를 담은 원형의 대형 스티커를 철도역 바닥에 부착해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게 된다. 주는 이 프로그램의 확대시행을 위해 Gallery Place-Chinatown驛에서 시범실시를 했으며, 시범실시 결과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여러 역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부착 예정인 5개 주요 문구는 "역사 내에서 뛰지 마세요", "에스컬레이터에 앉지 마세요",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에 서세요", "차임벨 소리는 전철문이 닫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객이 내리고 나서 승차하십시오" 등이다. 주는 이 밖에도 330개 이상의 문구를 사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철도역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wmata.com/about/MET\\_NEWS/200302/pr\\_messages.cfm](http://www.wmata.com/about/MET_NEWS/200302/pr_messages.cfm))

### 5 기상조건에 따라 도로관리방안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 개발. 운용 (미국 쏘도시)

미국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FHWA)는 기상조건에 따른 도로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도로관리 대응방안을 제시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최근 개발해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미국 교통당국은 1999년부터 6개 연구기관이 협력해 개발한 “Maintenance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고 불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상조건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부 지역에서 이 시스템을 운용한 결과,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www.fcw.com/fcw/articles/2003/0210/tec-weather-02-10-03.asp](http://www.fcw.com/fcw/articles/2003/0210/tec-weather-02-10-03.asp))

### 6 보육 및 교육을 함께 하는 일체형 유아시설 개설 (동경)

일본 東京都 시나가와(品川)구에서는 유치원의 교육기능을 살리면서 장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취학 전 유아를 위한 일체형 유아시설을 개설하기 위해 2003년도 예산에 건설비 3억엔을 계상했다. 2004년에 개설될 이 일체형 유아시설은 1~5세까지의 유아 100여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은 시나가와區 유치원 정교사와 보육사로 구성된 사립유치원협회에서 맡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양육지원센터도 병설하기로 했다.

이러한 일체형 유아시설이 갖는 장점으로, 5년 동안 아이들이 한 시설에 다닐 수 있게 됨에 따라 교사들이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 수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학교교육법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이외에는 유치원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므로, 시나가와區는 이 시설을 유치원으로 인가받지 않고 區의 독자적인 유아교육시설로 두기로 했다. 운영시간은 보육시간을 포함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3세 이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를 교육 시간으로 했다. (아사히신문, 2003. 2. 5)

### 7 첫째 및 셋째 자녀 이후의 1세 미만 영아 보육료 전액 지원 (일본: 아키타縣)

일본 아키타(秋田)縣은 1991년부터 실시해온 「건강한 자녀 양육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1세 미만의 첫째 자녀(장남 또는 장녀) 보육료를 시정촌(市町村)과 50대50 비율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縣은 기존에 제도화되어 있었던 셋째 자녀 이후의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전액 보조에 이어 이번에 1세 미만의 첫째 자녀를 830명으로 추정해 총 9억 4,212만엔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재 기혼여성의 초산(初産)은 27세 정도로 저소득 가구가 많은데, 월평균 약 44,500엔이 드는 1세 미만 영아의 보육료가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縣은 일을 하고 싶은 여성이 늘어나고 있고, 가정형편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하는 여성이 있으며, 육아휴가 취득률이 54.7%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실제로 보육비가 필요한 부모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아키타縣은 출산 전후의 지원제도도 확충했다. 즉, 임산부의 건강 유지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건강 검진(4회)과 치과 검진(1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억 575만엔을 계상했다. 또한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담과 놀이를 할 수 있는 교류 공간을 준비하고, 전문 보육사와 간호사로 이루어진 '자녀양육 어드바이저'를 배치하기 위해 513만엔을 계상했다. 이러한 지원제도 도입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출산율 감소 및 노령화 인구 증가 추세가 배경이 되고 있다.

(毎日新聞, 2003. 2. 7)

### 8 노인들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정보 제공하는 웹사이트 개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

미국 미네소타주 노인위원회(The Minnesota Board on Aging)는 미네소타주에 살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시설 및 서비스) 관련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www.minnesotahelp.info](http://www.minnesotahelp.info))를 최근 개설했다. 이 웹사이트는 큰 글자와 명암 및 색깔을 더욱 선명하게 한 그림들을 활용해 노인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용 노인들이 전문가와 직접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 노인들이 지역사회시설 및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전화 연결도 지원해준다. 이용자들은 웹사이트에 접속해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체크하면 된다. 노인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용빈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www.dhs.state.mn.us](http://www.dhs.state.mn.us))

### 9 지하철 歷史의 공유를 위해 시민들에게 지하철 차량 부품 판매 (뉴욕)

미국 뉴욕시 대중교통운영기관인 'MTA New York City Transit'은 사용연한이 지난 지하철 차량 부품 등을 인터넷을 통해 일반시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시민들과 함께 지하철 역사(歷史)를 공유한다는 취지로 펼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시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 차량인 'Redbirds(1962년부터 운행)'가 폐차 처분된 것을 계기로 기획되었다. 지하철 문고리, 목적지 표지판, 경적 등 다양한 지하철 부속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뉴욕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도시철도 운영 기관 등도 이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nypost.com/news/regionalnews/68721.htm](http://www.nypost.com/news/regionalnews/68721.htm))

### ④ 「조세사면」 제도 도입·시행 (뉴욕)

미국 뉴욕市는 시민들이 체납한 州稅(State Tax)를 별도의 벌금 없이 할인된 이자율로 납부하는 「조세사면(Tax Amnesty)」 제도를 도입, 2002년 11월 18일부터 2003년 1월 31일까지 시행했다. 市는 이 제도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왔으며, 市홈페이지를 통해 「조세사면」 신청을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사면」 혜택은 민사상 벌금 면제(Civil Penalty Waiver), 채무이행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 할인, 「조세사면」 기간 동안 모든 행정·민사·형사상 소추로부터의 면제 등이다. 「조세사면」 기간이 끝난 후에는 체납자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게 되고, 민사·형사상 벌금을 물게 된다.

「조세사면」 신청 대상자는 해당 조세·조세부과기간·관련 거래에 대해 요구되는 신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이전에 제출한 신고서에 납세액을 줄여서 기재한 자, 현저하게 많은 세금을 부과받은 자 등이 해당된다. 「조세사면」의 적용을 받는 조세는 개인 소득세와 수익세, 원천과세, 판매세와 이용세, 특별소비세(Excise Tax), 고가도로 이용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이다. 「조세사면」 프로그램에 의한 조세 납부는 정해진 기한(2003년 3월 15일)까지 완불하거나, 조세사면서에 별도로 기재된 날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조세사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전에 뉴욕州 「조세사면」 프로그램을 통해 「조세사면」을 받았던 납세자는 그 당시 「조세사면」을 받았던 조세에 대해서는 「조세사면」 신청자격이 없다. 예를 들면, 납세자가 이전에 법인세에 대해 「조세사면」을 받았다면 또다른 법인세에 대해서는 「조세사면」 신청자격이 없으며, 다른 조세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이 있다.

(home.nyc.gov)

### ④ 예술 및 문화도시 조성 위해 문화·예술단체에 ‘문화기금’ 지원 (보스턴)

미국 보스턴(Boston)시는 보스턴을 예술과 문화의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현재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보스턴 문화기금’은 지역 내 미디어와 여타 기관 등 민간부문에까지 기부 캠페인을 펼쳤다. 시는 예술 및 문화 창달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스턴 문화기금’을 운영하는 재단 설립 관련 세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문화기금’ 운영 재단은 꾸준히 도시의 문화 자원을 축적하고 기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 ‘WBZ/Channel 4’ 방송이 이 캠페인의 후원 방송사로 확정되어 활동중이며, 인터넷기업(www.wbz4.com)에서 시의 모든 문화 및 예술 행사를 안내하고 연간 문화행사 캘린더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보스턴의 41개 예술단체에 30만 달러 이상의 문화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주로 지역경제개발, 학교 제도권 안팎의 청소년, 공공장소에서의 문화영역 및 문화 접근성, 문화정보와 기술 협력 분야 등에 지원되고 있다.

([www.cityofboston.gov/news/pr.asp?ID=1580](http://www.cityofboston.gov/news/pr.asp?ID=1580))